

Vol.
27**소식지**
2020.12.31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Seohaea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

02 연구소 소식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01 이슈공감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과
충청남도 현안 그리고, 과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신(sinslee@cni.re.kr)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만큼 온실가스를 흡수(상쇄)하거나 제거해서 실제 배출되는 온실가스(온실가스 순배출량)를 “0(Net-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포함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제시하였고, 이번 정부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방향은 산업,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소외계층, 지역 없이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기술 개발확대, 연구지원 대폭강화를 통해 기술발전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고, 이런 우리의 핵심기술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녹색금융과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에 앞서 충청남도는 2020년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했다. 충청남도는 민선 6기부터 탈석탄을 정책화했으며, 민선 7기에는 탈석탄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에서 강조된 탄소금융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 등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전국 1위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천 행동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어, 2018년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Powering Coal Alliance)’에 가입하였고 2019년 동아시아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와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공동선언을 채택을 주도했다. 2020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보령 1,2호기)를 바탕으로 강건한 탈석탄 정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선도적 탈석탄 정책 추진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은 명확한 선언으로 출발하여 구체적 실천으로 발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적극적인 민간 참여유도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지원 시스템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탈석탄 동맹(PPCA)과 국제연합(UN) 공동주최 국제기후세미나
‘충남도 탈석탄·기후위기 대응정책’ 사례발표(20.9.17.)

01 2020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실무워크숍 개최 / 11월 12~1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년도부터 도내 3개소 지정·운영에서 '21년부터는 5개소로 확대지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도내 지역해양환경교육 담당자들간의 실무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12~13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도, 시군 간 해양환경교육 실무자들의 성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강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고래보호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관인 핫핑크돌핀스의 강자와 함께 제주도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인 한화해양생물연구센터 방문 일정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지역해양환경교육을 선도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겠습니다.

02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개소식 / 11월 13일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가 2020년 11월 13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통합정보센터에서는 발전3사가 운영했던 민간대기측정망(38개소)을 충남연구원으로 이관하여 국가측정망 수준의 정보제공과 지역 대기측정체계 신뢰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환경 DB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대기환경 관련 개선정책 추진 등 깨끗한 충청남도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3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 11월 26일



지난 11월 26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세미나로 진행하였으며, 충청남도 15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연계성 확보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과 감축실적 관리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연구위원이 'IUC(국제도시협력)프로그램 소개와 활용'인 부문별 지역 기후행동 분석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 제도소개 및 온실가스 감

축방안,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방법론을 발표 및 주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정책 변화 적용, 온실가스 감축 제도 제언 등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4 충남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MOU 후속초치 및 미세먼지 공동대응 연구방안 협의 / 12월 1일



지난 8월 21일 충남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맺은 상호 업무협약의 후속체제로 연구원장간의 면담과 향후 공동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으로만 진행되었던 업무협약에 이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만나 각 기관의 중점사업과 공동 연구방안, 그 중 이번 협약의 중점사항이었던 미세먼지 대응 연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 기관에서는 2021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과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도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결과 확산 세미나 등 2021년도의 세부적인 연구 협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더 맑고 깨끗한 충청남도의 하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연구

구분	연구과제명
수탁과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충청남도 민간대기측정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제2차 금산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2020년도 이행평가
	충남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2020년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연구
	2020년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충남 서북부 기초 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정책지원 과제	논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0년도 이행평가 용역
	2020년 충청남도 기후변화 교육지원
	충청남도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충청남도 2019년도 녹색성장 계획 이행평가

• 연구소개 / 제2차 금산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2020년도 이행평가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5년 주기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의무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올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이 완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을 수립 중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현재 제2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완료 시기의 도래로 2021년 국가계획과 연계한 제3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개정된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의해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완화와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과 이행평가체계 정착을 위해 2016년부터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종합계획 수립, 이행평가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절차